

나의 김현승 시인의 발견

곽광수 *

먼저, 저는 김현승 시인에 대한 저의 대수롭지 않은 평문을 생각하고 저를 이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맡기신 김인섭 교수 및 인문과학연구소 측의 그 과분한 평가에 약간 거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 김현승 시인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조 발표를 할 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므로, 기조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김현승 시인의 시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비평적인 노력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김현승 시인이 우리나라 시단에서는 드물게 독창적이고 통일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임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김 시인의 시를 비평적으로 읽는 과정에, 그 시 세계에서 저 나름의 통일적인 이해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었던 면모를 단순히 지적함으로써 앞으로의 김현승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기야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김현승 연구의 판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면모는 이미 연구자들이 밝혀 놓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라도 알려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김현승 시인을 공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친구 최하림 시인 덕택입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문단 친구들 사이에서 최 시인이 평문도 더러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자고 했더니, 쑥스러워 하

* 서울대 명예교수

면서 《창작과 비평》지에 난 김현승론을 읽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시인은 정직하고, 우리나라 비평이 흔히 잘못 빠지는 현학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정직성으로 하여 그 평문에서 이를테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른바 〈테마 비평〉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인용된 시편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것들이 무척 감동스러웠다고 기억됩니다. 그래 최 시인에게 김현승 시인의 전집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 시인이 편집장으로 있던 지식산업사에서 그의 기획으로 《한국현대시문학대계》가 나오게 되자, 내가 김현승 시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을 알고 그는 제게 김현승 편을 맡겼던 것입니다.

《한국현대시문학대계》의 김현승 편을 맡아 그 소개 평문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처음으로 쓰는 우리나라 시인론을 위해서나, 결과적으로는 김현승 시인을 위해서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어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저의 누님이 친구의 영향으로 독실한 가톨릭신자가 된 분이어서 누님의 간원으로 대학교 때 어느 훌륭한 학자 신부님에게서 천주교 요리문답을 추론적으로, 이를테면 철학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필경 저는 성세를 받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을 저의 동양적인 형이상학적 감수성의 저항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감동스러움을 알았고, 그래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읽은 영국의 가톨릭 작가 그레엄 그린의 『사건의 핵심』의 감동의 비밀을, 이를테면 원천적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외서점에서, 현대불문학사에서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작가로 나오는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대표작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펼쳐 본 첫 페이지에서 느낀, 감동스럽게 울리는 주인공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그 책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프랑스에서 베르나노스에 대해 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대학교에는 이미 이른바 신비평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외국인에게는 <테마 비평>이 실천하기에 가장 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일반적으로 되풀이되는 소주제를 뜻하는 <테마>라는 말은 이 경우 구체적으로 시적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그래 저는 베르나노스를 <테마 비평>으로 다루기로 하고, <테마 비평>을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 그 창시자라고 할 바슐라르, 시인이고 영문학자였던 송옥 선생님이 발견하고 감탄했던 그 바슐라르를 또 공부했습니다. 즉, 제가 김현승 시인의 시 세계를 비평적으로 성찰하기 전에 저의 정신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었고, 그 요소들이 바로, 제가 저 나름으로 그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학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어 제시하는 문학, 그리고 주어진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결과로 변화해 가는 세계의 모습,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세계에 담을 쌓고 거부하는 인간을 보여주는 문학, 이렇게 그 둘입니다. 아주 거칠게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그 두 가지 문학에 대표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문학도 역시 그러하며, 불문학에서 예를 든다면 프랑수아 모리악이 고전주의적인 기독교 작가라면, 베르나노스는 낭만주의적인 작가입니다. 김현승 시인 역시 낭만주의적인 기독교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실, 모든 종교는 이상적인 초월적 세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낭만주의적이지요. 그러므로 위의 두 부류의 문학에서 전자가 진실성이 그 심미적 판단의 근거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상적인 세계로의) 지향성이 그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슐라르는 독일 낭만주의에서 큰 영향을 받은 과학철학자이자 상상력 연구가입니다. 그가 독일 낭만주의에서 얻은 생각은, 상상력이란 현실을 재현하는 정신 기능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현실에는 없는 것을 그리고 실현시키는, 즉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

니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발견, 발명,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학문의 새로운, 이른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상상력이며, 문학적, 아니 모든 예술적 창조를 수행하는 것도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관점은 한 시인, 작가가 그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즉 그의 지향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아내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시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적 이미지가 직접적으로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언어는 자의적인, 이른바 기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미지 즉 상(像)이라는 것은 심상(心像) 즉, 상상 가운데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바슐라르가 시적 이미지, 혹은 문학 이미지를 <상상력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학 비평·연구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테마 비평>이 바슐라르에서 비롯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인의 지향성, 즉 그의 시적 지향성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은, 구체적으로는 그의 시작품들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의 지향성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만약 문제의 시인이 훌륭한 시인이라면, 그의 시 세계 전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세계라는 말 자체가 그것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전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김현승의 시 세계를 탐험하려고 떠나가는 저에게는, 이렇게 기독교 문학에 대한 저 나름의 先 이해, 그 탐험의 수단인 바슐라르의 낭만주의적인 바탕, 그 대상인 김현승 시인의 낭만주의적인 기독교, 이렇게 세 여건이 이를테면 시쳇말로 삼박자로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김현승 시인이 훌륭한 시인이 아니었다면, 그 맞아 떨어진 삼박자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인들에 대한 비평적 독서를 저는 아직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증정 받은 비평집들을 이것저것 읽어본 바로는, 우리나라 시단에서 적어도 저는 김현승 시인만큼 통일적인 시

세계를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대개 한 시인이
나 작가의 작품들 전부를 모두 읽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편, 한 소설
을 읽고도 그것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법이므로 통일적인 작품 세계가
만드시 심미적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날 적어도 프랑스 현대 비평에서는 작품 세계의 통일성이 그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승 시인의 그 통일성이 이룩한 독
창성은 서양의 기독교 문학과 비교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학에서는 침묵하는 신에게 반항은 할지라도, 신
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아니 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신을
버린 경우는 기독교 문학이 아니니 논외입니다). 그러나 김현승 시인은
적어도 그의 시 세계에서는 신을 버린 듯하고, 그러면서도 <건고한 고독>
을 통해 신적인 영원성과 윤리성에 대한 추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
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독>은 우리나라 시에서 여간 흔하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그리고 김현승 시인 역시, 그렇게 흔하게 다루어진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고독을 다루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실정법을 연구하기만 하는 우리나
라 법학계에서 외롭게 법철학을 연구해 온 어느 법철학자의 한 저서 첫
머리에:

먼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푸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라는 「푸라타나스」의 셋째 연을 발견하고 저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 영원성의 형태를 띠고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
를 읽게 하는, 그런 고독은 우리나라에도, 또 기독교의 본 고장인 서양에

도 없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평문을 쓰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저의 통일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면모라고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의 통일적인 이해를 벗어 난다기 보다는, 시인의 시를 벗어나는 분야, 즉 이른바 문학 외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결론의 하나는, 만약 반드시 <사라짐> 다음에 <영원성>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김현승 시 세계의 상징체계로 볼 때, 악에 물든 이 세계가 사라져야 신적 세계가 나타나리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악과 신과의 대립적인 이원성은 원죄에 떨어진 이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 거기에 그리스도가 인자로 태어나 이 세계의 핍박을 감내하는 그 기독교적인 사랑을, 달리 말해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이든 간에)인도 아니고, 다만 프랑스의 가톨릭 문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저 나름으로 이해한 바에 비추어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만, 김현승 시에 나타나는 그런 것과 같은 경향이 프로테스탄트에 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일본의 가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에도 몇 번 오른바 있는 엔도 슈사쿠가 그입니다. 김현승의 <제목>같은 시편은 제가 보기에는, 악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결벽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이 세계에의 참여에 대한 불안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동양적인 윤리적 감수성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한 세상을 등지고 산에서 고사리를 캐어먹다가 굶어 죽은 백이숙제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일화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런 처사 선비들의 이야기가 드물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현승의 어떤 <사라짐>의 이미지들이 보여 주는 적멸을 두고 동양적 감수성을 말했습니다만, 그의 청교도적인 윤리적 감수성도 그런 동양적 감수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의 실제적인 사회 참여의 전통은 강력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에는 문외한인 제가 김현승의 시를 공부하며 느낀 것입니다. 김현승 연구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흥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시와, 서양의 어느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 시인의 시와, 동양의 어느 처사 선비의 시문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리하여 문학 작품 자체 내에서, 제가 김현승 시인을 두고 그리 했듯이 그 이미지들 자체 내에서 정녕 그들의 청교도적인, 혹은 탈속적인 윤리성이 나타나는지 밝혀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연구의 흥미는 뚜렷해집니다. 어떤 기독교와 동양 사상의 윤리성의 청교도적인 유사성. 그리고 그것은 감수성의 차원에서 밝혀져야 그 두 전혀 다른 세계관이 그 유사성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날 것이므로, 그 일은 오직 문학작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 만큼, 문학도로서는 더욱 흥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